

주식전략

주식전략 담당 이상연

lee.sang-yeon@shinyoung.com

두 가지의 순환매

분석의 기본가정

- AI 투자 사이클은 유효하며 GPU·메모리에서 데이터센터 및 AI서비스로 관심 확산
- 원화 강세의 수혜 업종은 증시 조정 국면에서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 가능

AI 밸류체인 내에서의 순환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비롯해 향후 미·중 정상회담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결책을 찾고자 하겠으나, 정책 기대에만 의존하기에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불안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 저점을 한 차례 확인한 만큼 주식 전반의 비중 축소를 고민 할 시기 보다는 종목 '선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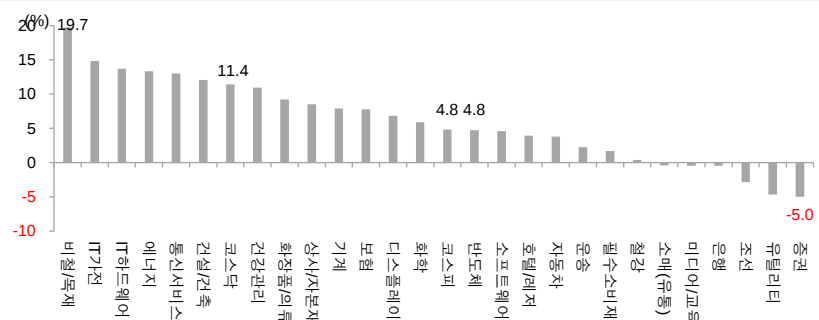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의 관심은 'AI인가 아닌가'에서 'AI 안에서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엔비디아의 5,000억달러 규모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구축과 Anthropic의 IPO 논의는 자본의 관심이 GPU 및 메모리와 함께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 모델 서비스로 다시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메모리의 반등 속도가 더디다는 사실과 AI 투자 사이클이 훼손됐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업종별 순환매: AI와 非AI

국내 증시에서도 여전히 AI 밸류체인 중에서도 특히 대형주가 시장의 중심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는 7월 급락이 만든 수급 부담이 지수의 반등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가 7,401pt에 형성돼 있어 7,100~7,400pt 구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점은 8월 들어 반도체의 업종 순위가 14위로 내려오는 동안 상승 업종은 20개로 늘었고 업종 간 수익률 편차는 연중 최저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지수의 탄력은 제한적이나 업종 및 종목의 선별의 유효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국면이다. 또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원화 강세의 수혜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업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편입 비중과 시점을 현재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향후 환율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업종별 8월 MTD 수익률: 반도체보다 나머지 업종이 더 올랐다



AI 밸류체인 내에서의 순환매

(1) 반도체 부진이 AI의 부진은 아니다

장기 금리의 근본적인
해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미 재무부의 극약 처방 효과가 채 이틀도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전한 전쟁 종식과 같은 극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당분간 높은 금리 환경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비롯해 향후 미·중 정상회담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결책을 찾고자 하겠으나, 정책 기대에만 의존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단기 저점을
확인한 만큼
주식 비중 축소보다는
선별의 시간이라는 생각

불안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 저점을 한 차례 확인한 만큼 현 시점을 주식 전반의 비중 축소를 고민 할 시기 보다는 종목 '선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엔비디아가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6개의 금융사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5,000억달러 이상의 금융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자금조달 구조를 둘러싼 논란과 실제 이행 여부 및 규모는 지켜봐야겠으나 적어도 AI 인프라에 대한 자본의 관심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벤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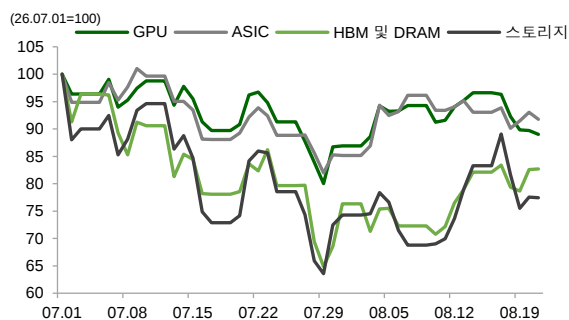
또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AI

국내에서도 최근 반도체의 반등 탄력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8월 MTD 수익률 +4.8%), 이를 AI 사이클의 부진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익 기여도와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면 반도체는 여전히 국내 증시의 중심이며, AI 투자 사이클의 방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업종이라는 점도 변하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AI 내에서도
어디로 돈이 몰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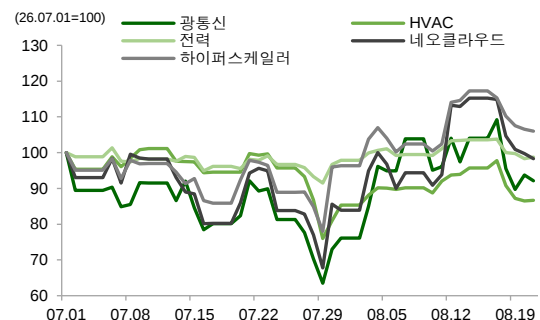
다만 글로벌 증시의 관심은 이제 'AI인가 아닌가'보다 AI 안에서도 '어디로 자본이 이동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주 NVDA, CRWD, MRVL 등 AI 밸류체인 내 서로 다른 영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러한 순환의 방향을 가늠할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엔비디아 컨퍼런스콜에서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코멘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1. AI 밸류체인 내 테마별 주가 추이(1) 반도체



주) 2026.08.21 기준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AI 밸류체인 내 테마별 주가 추이(2) AI 데이터센터



주) 2026.08.21 기준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hropic ARR
2025년말 90억달러 →
2026년 7월 650억달러

(2) Antropic IPO

또한 Anthropic의 IPO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증시의 리딩 테마가 당분간 AI에 머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까지 보도된 최대 2조달러의 기업가치와 1,000억달러 이상의 조달 규모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시장의 기대대로 진행될 경우 지난 6월 SpaceX가 세운 기록을 다시 넘어서는 초대형 IPO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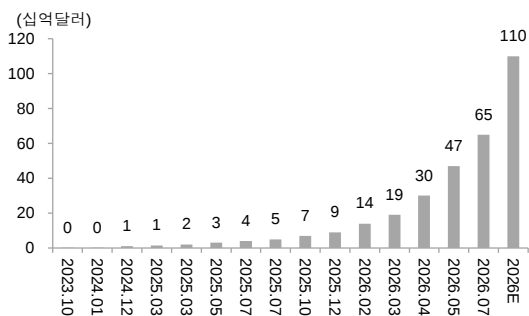
특히 Anthropic의 경우 단순한 'AI 기대주'라기보다 상장을 뒷받침할 실적 기반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말 약 90억달러로 추산되었던 연환산 매출(ARR)은 올해 7월 말 650억달러를 넘어섰고 2분기 매출 역시 전분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의 중심에는 Claude Code를 비롯한 기업용 AI 서비스가 있다. 소비자 구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OpenAI와 달리 개발자와 기업 고객의 실제 업무에 침투한 B2B 수요가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은 수익의 가시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OpenAI가 막대한 모델 개발과 인프라 투자로 높은 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Anthropic은 2분기 소폭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며 손익분기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물론 AI 기업 특성상 향후 컴퓨팅 비용과 모델 개발비 부담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빠른 매출 성장-기업 고객 확대-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단순한 미래 기대보다 실제 숫자를 근거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여지를 높인다.

AI 프론티어 기업,
기대의 영역에서
실적 검증의 영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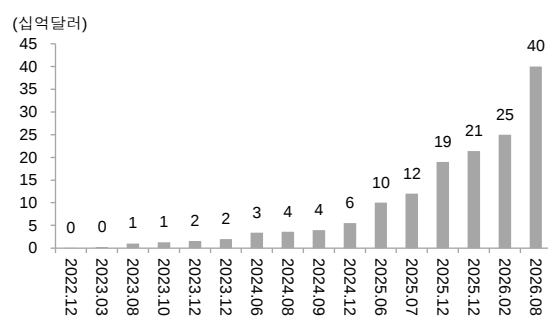
결국 Anthropic IPO의 의미는 기록적인 조달 규모 자체보다 AI 산업이 이미 '기대의 영역'에서 '실적을 검증받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상장이 흥행할 경우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가격 기준이 형성되는 동시에 GPU와 메모리에 집중했던 시장의 관심이 모델-소프트웨어-클라우드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증시에서 AI라는 주도 테마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도표 3. Anthropic 연환산 매출(ARR) 추정치 추이 및 전망



주) 2026E 데이터는 올해 말 기준 업계 추정치(1,000억~1,200억달러)의 중앙값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도표 4. OpenAI 연환산 매출(ARR) 추정치 추이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AI와 非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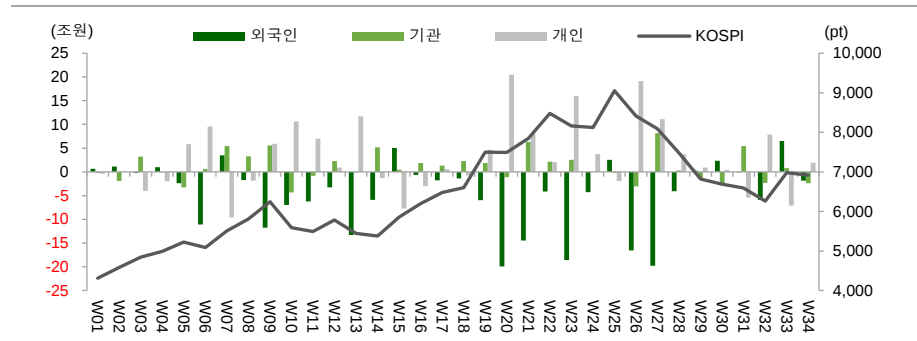
(1) 수급 부담, 그러나 넓어지는 시장

국내 증시에서도 여전히 AI 밸류체인 중에서도 특히 대형주가 시장의 중심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당분간은 AI의 펀더멘털보다 수급적인 제약이 지수의 반등 속도를 제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7월 급락 과정을 복기하면 지수가 주요 가격대를 회복할 때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매물과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수의 반등 속도가 기대보다 더디더라도 이를 AI 주도주의 훼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당분간 1) AI 밸류체인 내부의 순환매와 2) 일부 非AI 업종으로의 수급 분산이 병행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급 부담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연초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59조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07조원을 받아냈다. 주간 순매수 금액을 가중한 평균 매매 지수(주간 순매수 금액 × 주간 KOSPI 증가)/(주간 순매수 금액)를 계산하면 개인은 7,401p, 외국인은 7,128p다. 현 지수 6,913p는 개인의 금액가중 평균 매매 지수를 6.6%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지수가 7,100~7,400p 구간에 접근할 때마다 개인의 원금 회복 매물과 외국인의 재매도가 겹칠 수 있다는 의미다. 8월 둘째 주 지수가 11% 반등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7.1조원을 순매도하고 외국인이 6.5조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주체가 교체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도표 5. 2026년 투자주체별 주간 KOSPI 순매수액 및 KOSPI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수급 부담이 곧 시장 내부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8월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업종 순환매는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한다. 26개 업종 기준 반도체의 8월 수익률 순위는 14위로 연초 이후 처음으로 중위권까지 내려왔다. 1~7월 반도체의 월별 순위가 2위→4위→23위→3위→2위→2위→25위로 선두 아니면 하위권이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순위 하락의 배경이 시장 전반의 약세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8월 26개 업종 중 20개가 상승했고, 반도체를 제외한 25개 업종의 중간 수익률(+5.9%)이 반도체(+4.8%)를 웃돌았다. 반도체가 55.7% 상승했던 5월에 오른 업종이 9개, 6월(+9.7%)에는 5개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업종 간 수익률 표준편차 역시 6.4%p로 8개월 중 가장 낮아,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평균 매수단가
7,401pt
지수 7,100~7,400pt는
매물 소화 구간

8월 반도체 순위 14위,
그러나 상승 업종 20개로
업종 쏠림 완화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

반도체 only에서 순환으로

정리하면 3월과 7월의 하락은 반도체가 빠질 때 전 업종이 함께 빠지는 형태였고, 5~6월의 상승은 반도체 홀로 가는 형태였다. 8월은 반도체의 절대 수익률이 크게 둔화됐음에도 오히려 시장의 폭이 넓어진 첫 달이다. 지수 자체의 반등 탄력은 수급에 눌려 당분간 제한적일 수 있으나, 지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종목 및 업종 선별의 유효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국면이라는 판단이다.

순환매(1):
AI 밸류체인 내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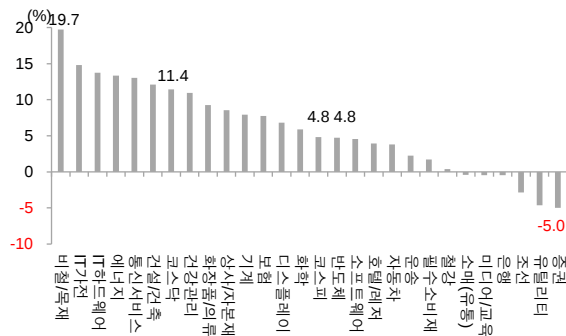
AI 밸류체인 내부에서도 순환의 흔적이 확인된다. 8월 국내 IT 업종 수익률은 IT가전 +14.8%, IT하드웨어 +13.7%, 디스플레이 +6.8%, 반도체 +4.8%, 소프트웨어 +4.6% 순으로 메모리가 가장 부진했다. 다만 7월 낙폭이 IT하드웨어 -42.8%, IT가전 -19.5%로 반도체(-28.8%)와 엇갈렸던 만큼 기저효과가 섞여 있으며 순환은 시작됐으나 아직 한 달 치 신호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도표 6. 반도체 독주에서 업종 순환매로?

	26년 1월	26년 2월	26년 3월	26년 4월	26년 5월	26년 6월	26년 7월	26년 8월
반도체 수익률(%)	36.41	26.6	-22.64	41.62	55.69	9.66	-28.79	4.75
반도체 순위 (26개 업종 중)	2	4	23	3	2	2	25	14
반도체 제외 25개 업종 수익률 중간값(%)	13.94	12.66	-15.67	13.33	-5.89	-11.07	-8.81	5.89
상승 업종 수	26	24	0	24	9	5	4	20
반도체 수익률 상위 업종 수	1	3	22	2	1	1	24	13
업종 수익률 표준편차(%p)	10.96	9.16	6.28	16.25	22.63	10.54	11.13	6.41
코스피 수익률(%)	23.97	19.52	-19.08	30.61	28.45	0	-22.19	4.81
국면 판단	반도체 주도		동반 급락	반도체 주도	반도체 독주		동반 급락	순환매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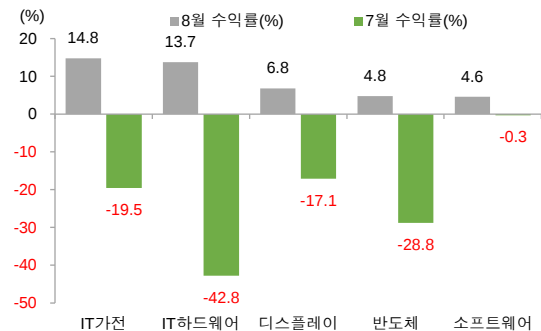
주1) 업종 수익률 표준편차가 클수록 특정 업종의 쏠림이 크다는 것을 의미
주2) 2026.08.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업종별 8월 MTD 수익률: 반도체보다 나머지 업종이 더 올랐다



주) 2026.08.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국내 IT 업종 8월 수익률 vs 7월 수익률: 기저효과 고려 필요



주) 2026.08.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원달러 환율
7/1 1,551원
→ 8/23 1,386원

달러가 아닌 원화 고유의
요인으로 빠른 절상 진행

2022년과 현재의
원화 강세의 차이점:
현재는 시장 전반의
멀티플 확장 요인이라
보기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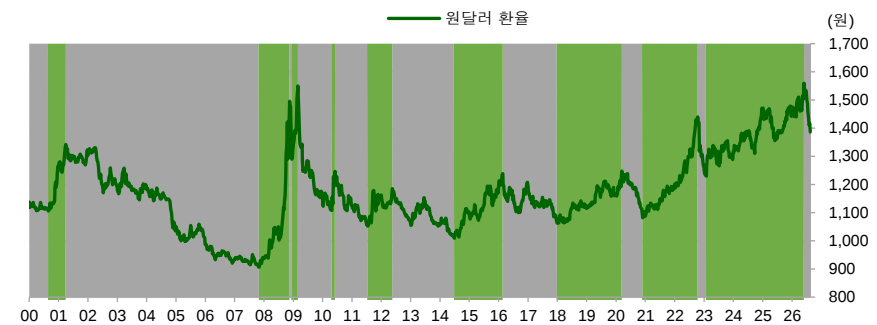
(2) 원화 강세 수혜 업종에 대한 생각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다. 원/달러 환율은 7월 1일 1,551원에서 최근 1,380원대까지 빠르게 하락했다. 단기간의 변동이라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으나, 방향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 실적부터는 업종별 환율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원화 강세의 성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달러지수는 101.36에서 98.80으로 2.5% 하락하는 데 그쳤고, 엔화도 1.7% 절상에 머물렀다. 원화 절상 폭 가운데 달러 약세로 설명되는 부분은 26%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의 7월 기준금리 인상(2.50%→2.75%) 및 법인세 중간 예납을 위한 국내 기업의 원화 환전 수요 등이 촉발한 원화 고유 요인이라는 의미다.

2022년 10월~2023년 초 국면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당시 원화는 14.6% 절상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달러지수는 8.1% 하락, KOSPI는 12.1% 상승했다. 연준 피벗 기대가 할인율을 낮추면서 원화 강세와 증시 강세가 함께 나타났던 것이다. 반면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아니라 국내의 개별적 요인이 원화를 끌어올렸다. 할인율이 내려가며 멀티플이 확장되던 2022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도표 9. 원달러 환율 국면 분석: 7월초부터 빠르게 하락 중인 원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원달러 환율과 달러지수 추이 비교: 2020년, 2022년 원화 강세와의 차이 존재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따라서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을 과거 국면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멀티플 확장이 아닌 원가·비용 채널을 통해 실적이 직접 개선되는 업종으로 범위를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순환매(2): 比AI 업종

월 이후 초과수익 상위 업종은 성격이 둘로 갈린다. 운송(+25.2%p, 12M fwd EPS +31.6%), 보험(+16.2%p, +49.8%), 필수소비재(+24.4%p, +9.0%)는 주가와 실적 추정치가 함께 올랐다. 반면 초과수익 1위인 비철·목재(+30.7%p)는 EPS 변화가 +1.9%에 그쳤고, 철강(-2.7%)과 건설(-0.4%)은 오히려 하향됐다. 같은 상위권이라도 실적이 뒷받침된 쪽과 낙폭 과대 요인으로 오른 쪽이 섞여 있다는 의미다.

지금의 환율 레벨이
이어진다면…?

이 가운데 원화 강세의 원가 절감 효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뚜렷한 것은 운송과 필수소비재다. 달러 결제 비용과 수입 원가 부담이 큰 업종인 만큼, 운송과 필수소비재에서 확인되는 EPS 상향은 환율 변화가 이미 추정치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호텔/레저 역시 +14.7%p의 초과수익을 기록했으나 EPS 변화는 +0.3%에 그쳐, 아직 주가가 기대를 선반영한 단계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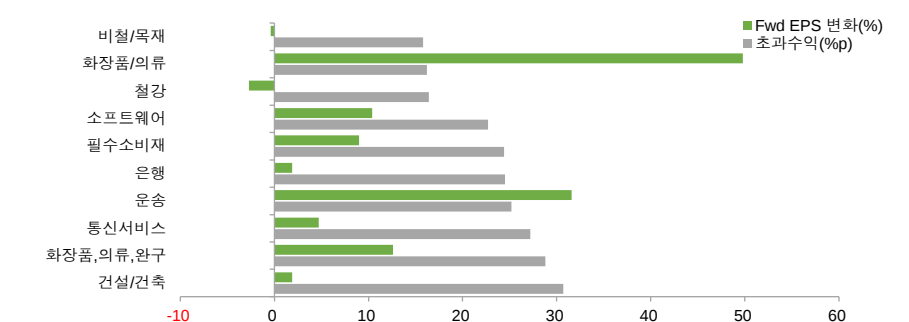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 원화 강세
업종이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되기에는 역부족

다만 두 가지 단서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 업종은 8월 반등 국면에서는 오히려 뒤처졌다(운송 -2.6%p, 필수소비재 -3.1%p). 하락장 방어력은 확인됐으나 반등을 주도하는 성격은 아직 아니다. 둘째, 3분기 평균 환율은 현재까지 1,454원으로 2분기(1,503원) 대비 3.3% 낮지만 전년 동기(1,388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을 확인하려는 관점에서는 3분기보다 4분기에 효과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긴 했으나 향후
환율 상황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결국 시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더라도 수급상 주도주의 속도 조절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원화 강세의 수혜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非AI 업종에도 선택적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는 지수 반등을 주도하는 성격이라기보다 조정 국면의 방어 수단에 가깝다. 이에 편입 비중과 시점을 현재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향후 환율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도표 11. 원화 강세 국면(26.7.1~8.21) 업종별 KOSPI 대비 초과수익 및 12M fwd EPS 변화11



주) 업종은 최근 원화 강세 국면에서 수익률 상위 업종 TOP10에 한해 내림자순으로 정렬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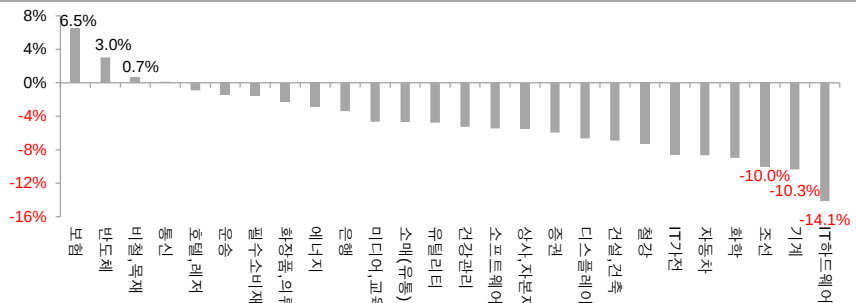
8/21 KOSPI 종가
6,912pt,
주간 수익률 -0.9%

지난주 KOSPI는 6,912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0.9%를 기록했다. 주 초 미국 장기 금리 상승 지속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출발했으나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발표 및 삼성전자의 현금배당 확정과 같은 주주환원 이슈가 증시 하단을 지지해주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반면 두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을 받으며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됐다.

여전히 코어는
IT+산업재이지만
보험, 화장품/의류와
같이 피난처 역할 가능한
실적 업종도 존재

한편 주가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KOSPI 전체 이익 모멘텀은 소폭이나마 상승 반전하였다. 여전히 기술 업종(IT하드웨어, IT가전, 반도체)과 산업재(조선, 기계, 운송)가 주도하고 있으나 보험, 화장품/의류와 같은 일부 업종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주가 조정과 달리 기존 주도 업종의 펀더멘털은 아직 훼손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실적 업종이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12.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8.21)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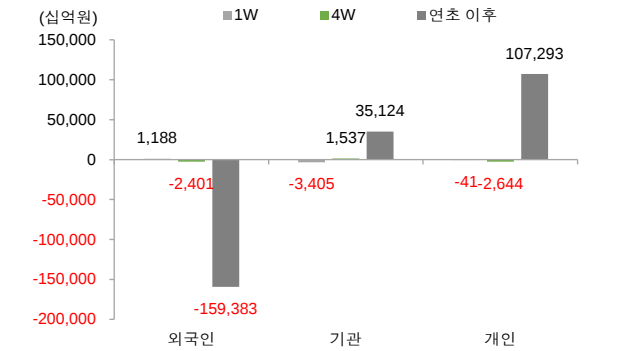
도표 13.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8.21)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7.24	07.31	08.07	08.14	08.21	07.24	07.31	08.07	08.14	08.21
KOSPI	-1.9	-1.4	-5.1	11.5	-0.9	7.2	7.2	5.3	4.0	5.1
KOSDAQ	-5.5	-3.8	11.0	8.2	-7.3	3.5	3.2	2.3	2.4	2.5
에너지	9.4	-14.9	4.7	11.5	-2.9	7.1	5.4	5.5	7.5	23.4
화학	-0.2	-4.8	11.4	4.5	-9.0	6.2	11.4	7.1	0.5	2.0
비철/무기	3.6	-5.2	11.8	6.4	0.7	2.2	1.7	-1.1	-1.4	0.2
철강	1.1	-1.0	6.6	1.6	-7.3	-2.1	0.1	-0.0	5.5	5.0
건설/건축	6.7	-9.3	14.6	5.1	-6.9	-0.2	2.6	4.1	3.7	2.9
기계	2.0	-8.9	13.0	6.5	-10.3	3.2	4.6	4.4	6.6	6.1
조선	3.7	-4.5	5.6	2.3	-10.0	1.9	5.7	9.2	11.2	12.9
상사/자본재	1.5	-5.5	8.6	5.7	-5.5	1.5	2.8	4.0	4.0	3.1
운송	3.1	-0.8	4.7	-0.9	-1.5	9.7	11.8	10.4	8.1	5.6
자동차	-5.7	-1.6	3.3	10.0	-8.6	1.4	1.5	1.2	1.1	1.3
화장품/의류	-3.6	-0.8	10.1	1.5	-2.2	3.4	4.7	5.1	5.4	5.5
호텔/레저	-0.4	-0.7	4.9	0.0	-0.9	-0.9	-0.9	0.4	0.3	0.4
미디어/교육	1.4	-8.3	7.7	-3.1	-4.6	2.3	1.6	0.5	-0.8	-1.5
유통	-7.3	-6.8	2.7	1.7	-4.7	1.4	0.4	1.6	-0.7	-1.1
음식료/담배	2.3	-0.4	5.8	-2.4	-1.5	1.2	1.1	2.3	2.0	2.4
헬스케어	-0.9	-1.8	13.9	2.8	-5.3	1.1	1.7	1.3	1.1	1.0
은행	-3.5	-2.0	5.6	-2.4	-3.4	2.9	2.0	1.7	1.1	1.1
증권	-4.4	-2.4	-3.0	4.1	-5.9	4.1	3.3	1.3	-0.5	-0.4
보험	-3.9	-2.6	-3.4	4.7	6.5	6.6	8.1	8.0	10.4	12.3
소프트웨어	3.6	0.3	4.7	5.6	-5.5	0.3	-0.5	0.7	-0.0	-0.0
IT하드웨어	-0.3	-12.0	12.1	18.2	-14.1	10.5	17.1	14.5	11.6	11.4
반도체	-4.0	1.1	-13.6	17.7	3.0	8.2	8.1	5.6	4.2	5.2
IT가전	-3.0	-4.6	13.0	11.1	-8.6	10.1	11.4	14.4	9.8	9.0
디스플레이	-4.3	-5.2	7.1	6.9	-6.6	-10.5	-15.5	-13.0	-13.6	-13.6
통신	7.1	-11.2	5.2	7.2	0.1	2.4	2.4	3.9	3.5	2.6
유틸리티	5.1	-3.3	3.8	-3.5	-4.8	9.2	7.9	3.2	-11.4	-14.0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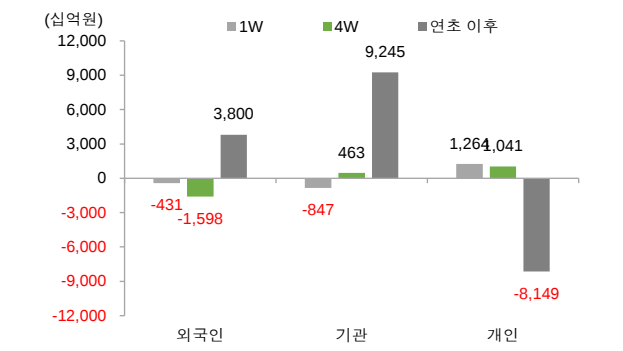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KOSPI는 순매수했으나 KOSDAQ은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의 매수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증권, 상사/자본재, 화장품/의류, 필수소비재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주 대비 KOSPI 순매수액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매수의 방향을 유지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기관은 KOSPI와 KOSDAQ을 모두 순매도 했으나 보험, 통신, 에너지, 필수소비재, 운송 업종은 순매수하며 선별적인 접근을 보였다.

도표 12.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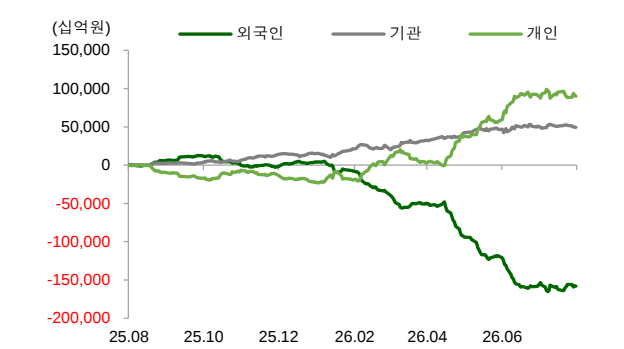
주) 2026.08.2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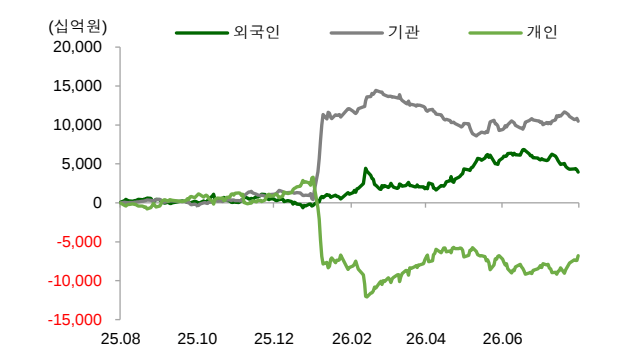
주) 2026.08.2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8.2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8.2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반도체	2,834.3
증권	87.1
상사, 자본재	77.6
화장품, 의류	60.5
필수소비재	58.1
IT하드웨어	-1,268.6
기계	-231.0
통신	-128.4
건강관리	-123.7
은행	-120.3

주) 2026.08.2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보험	153.3
통신	145.8
에너지	127.4
필수소비재	121.7
운송	53.7
반도체	-2,334.1
기계	-625.6
IT하드웨어	-566.5
건강관리	-332.6
상사, 자본재	-239.1

주) 2026.08.2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8/3 미 7월 ISM 제조업 PMI PLTR S-Oil	8/4 미 6월 JOLTS 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 AMD, ANET, SPCX, CAT, MRTK, AMGN, PFE, GILD, MCD 삼성증권, 카카오페이, 강원랜드	8/5 미 재무부 3분기 QRA 미 7월 ADP 고용변화 미 7월 ISM 서비스업 PMI WDC, SNDK, UBER, APP, LLY, DIS, DASH DB하이텍, 롯데칠성, 현대백화점, 에이피알	8/6 COP, HEWM, DDOG, CEG, ABNB 카카오, CJ ENM, 휴젤, LG유플러스, 케이티엔지	8/7 미 7월 고용보고서 미 7월 실업률 VST 네이버, CJ CGV,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파마리서치
8/10 RKLB SK바이오사이언스	8/11 LITE, CRWV, SMCJ CJ제일제당, CJ대 한통운, 펄어비스, 신세계	8/12 미 7월 CPI 한 7월 실업률 NBIS 한국콜마, 더블유게임즈, 미래에셋증권, 한화생명	8/13 한 옵션 만기일 미 7월 PPI AMT, TPR LG, 달바글로벌, 삼성화재, 삼성생명, DB손해보험	8/14 미 7월 소매판매 메리츠금융지주, 현대해상, 코리안리
8/17	8/18 미 7월 산업생산 HD, KEYS	8/19 TJX, LOW, TGT, EL	8/20 7월 FOMC 의사록 공개 WMT, DE	8/21 미 옵션 만기일
8/24 PDD	8/25 미 7월 CB 소비자신뢰지수 INTU	8/26 미 7월 PCE 미 2분기 GDP(잠정치) NVDA, CRWD, CRM, SNPS, HPQ	8/27 잭슨홀미팅(~29일) 한국은행 금통위 MRVL, DG, DLTR, ULTA, LULU	8/28 미 8월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 미 8월 미시간 기대인플레이션
8/3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한 7월 산업생산 한 7월 소매판매	9/1 한 8월 수출입동향 PANW, DELL, CRDO, MDB	9/2 AVGO, SNOW, HPE	9/3 PL, PATH	9/4 ORCL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